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최근 가뭄에 따른 농작물 생육상황과 대응방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평가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

거시경제 동향

201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 정보

국내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및 온실가스 감축 대응 동향

농정 여론 동향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 최근 가뭄 및 병충해 관련 리포트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5월 FAO 식량가격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최근 가뭄에 따른 농작물 생육상황과 대응방안

※ 본 자료는 6월 13~14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최근 가뭄 상황 및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가뭄상황

- 6.13일 현재, 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면적은 3.5천ha**로 전일보다 0.3천ha 감소
 - 그동안 지자체·농어촌공사의 **대책급수 추진으로 가뭄지역 감소 양상**
※ (6.8) 6.2천ha → (6.10) 4.8천ha → (6.12) 3.8천ha → (6.13) 3.5천ha
- 영농급수 및 강우부족으로 **저수율은 52%, 평년(58%) 보다 저조**
※ 저수율 30% 미만 880개소(고갈 135개소 포함): 충남 407, 전남 236, 기타 237

< 주요 용수부족 면적 >

전 국 (ha)			충 남			전남·북		
계	이양용수	본답용수	계	이양용수	본답용수	계	이양용수	본답용수
3,506	1,690	1,816	2,042	858	1,184	750	500	250

※ 모내기 실적 전국 95%, 충남 99%, 전남 95%

□ 농작물 생육상황 및 전망

- **벼**: 큰 지장 없으나, **물 부족은 3.8천ha에 대한 급수대책 필요**
 - ‘12년 모내기 목표면적: 867.4천ha(물 부족은 비율: 0.4%)
- 감자: 일부지역 작황이 부진하나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생산전망: (평년) 14.5천ha, 387.6천 톤 → (‘12) 18.1천ha, 414.1천 톤
- 콩: 6월 말까지 파종할 경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배추**: 봄배추 수확 중이며, **고온으로 상품성 저하현상 일부 발생**
 - 고랭지배추 주산지에는 아직 가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마늘**: 수확이 끝난 남부지역은 가뭄영향이 적지만, **수확직전에 있는 충남 등 중부지역 작황이 부진**. 단, 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생산전망: (평년) 25.8천ha, 333천 톤 → ('12) 28.3천ha, 330~334천 톤

- **양파**: 조생종은 수확이 끝났고, 중생종은 수확 종료단계로 영향이 적지만, **만생종은 알이 굵어지지 않는 등 작황이 부진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 전망**
생산전망: (평년) 19.5천ha, 1,332천 톤 → ('12) 21.0천ha, 1,200천 톤

- **고추**: 대부분 비닐멀칭 재배를 하고 있어 생육상황 양호

- **시설채소 및 과일**: 대부분 관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 미미

□ 대응방안

1. 조기대응체계 구축

- 지난 6.4일부터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농어촌공사에 “농업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 중
- 수급불안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관측 속보를 6월(예년: 7월부터 발간)부터 발간

2. 가뭄지역 급수대책 강화

○ 가뭄지역에 대한 용수개발, 장비, 인력지원 확대

- 용수원개발: 관정 356공, 하상굴착 424개소 등 1,294개소 개발
- 장비·인력: 양수기 2,749대 등 3,747대 장비 및 10,740명 인력지원
- 예산: 115억 원(국비 25억 원 포함) 확보, 47억 원 집행(관정 등)
※ '12.6.12일 현재 실적

○ 용수 부족논에 대한 대책 급수 추진

- 가뭄면적 3.8천ha 중 2.2천ha 조치완료

※ 가뭄면적 내역: 모내기 미실시 논 1.7천ha, 모낸 논 2.1천ha

※ 급수조치 내역: 모내기 미실시 논 급수 1.1천ha, 모낸 논 급수 1.1천ha

- 잔여 1.6ha는 장비지원·용수개발 등을 통해 조기급수 조치

※ 장비지원 1,612대, 용수원개발 440개소 등 대책급수

3. 세소류 수급안정

- **봄배추는 가격이 하락세**에 있으므로 **6월 중 aT를 통해 일정 물량을 수매**(6.5천 톤)하여 **여름철 가격이 높을 때 방출**

- 마늘은 의무수입물량(7.6천 톤)과 국산 수매물량(6천 톤) 등 비축물량을 가격동향에 따라 적절히 방출

- 양파는 의무수입물량(21천 톤)의 수입을 조기에 발주(6.12일 공고)하여 도입토록 하고, 필요 시 증량 추진

주요 농정 이슈_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평가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

※ 본 자료는 6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농산물(청과물 중심)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 방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사업개요

- 본 사업은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 농산물 수급안정, 농가의 거래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농산물 유통부문 구조개선 지원**
- 산지·도매·소비자유통, 수급안정, 물류부문에 대한 **농식품부 1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주로 농안기금에서 용자지원(92.5%)**
 - 사업군 예산: ('10) 1조 658억 원 → ('11) 1조 290억 원 → ('12) 9,407억 원

□ 평가결과

- **(산지유통조직·시설 규모화 미흡)**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되고, 인수·합병 등 **규모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이 부족**
 -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고,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은 시·군 단위의 소규모 신축 위주(광특)로 추진
 - ※ 산지유통종합자금(원물구매자금 지원)이 산지유통부문 지원금액의 91% 비중
 - ※ (중복 사례) APC 건설 관련: 농산물유통개선(농안), 거점산지유통센터(FTA기금)
- **(수급안정기능 미흡)** 계약재배사업 실적에 손익분담 등 적절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에 불과**
 - ※ 인센티브 부족의 경우, 가격하락 시 사업주체가 경영비 이하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가격상승 시 판매이익에 대해서는 농가의 환원 요구가 강한 현실
 - 수입비축 물량 부족, 비축시설 노후화 등으로 비축제도가 농산물 물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효과 미흡
 - ※ 소비량 대비 수입물량 비축률 수준: 마늘 5.3%, 고추 5.3%, 양파 0.7%
- **(물류효율화 부족)**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이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너무 넓어 규모화 저해**

※ '11년 기준 저온유통비중 20.0%, 하역기계화율 30.8% 등

※ 물류기기공동이용, 포장재비 사업 등은 개별농가 단위도 지원 실시

- **(도매시장 비효율성) 경매제(80% 이상) 이외, 거래방식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결제 안전성 부족 등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 부진
 - ※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이 없고,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체계로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부족

□ 지출성과 제고방안

○ 산지유통조직·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인센티브 강화) 인수·합병 시 정부지원 시설의 이전승인을 신속히 하고, 통합법인에 용자지원 확대, 평가우대 등 추진
- (자금지원방식 개선 등) 시설신축 위주의 국고보조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존시설 개보수, 시설통합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자방식 지원 추진
 - ※ 기존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가칭)'을 신설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

- (손익 분담 방안 등)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손익 분담 방안 및 **중앙회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 ※ (손익 분담 방안) ①농민과 농협 간 손익 일정비율 분담, ②농협손실 분담분에 대해 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일정비율 분담, ③중앙회의 지역농협 계약물량 책임판매
 - ※ (역할분담 체계) 농협중앙회: 금융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등, 지역농협: 계약, 농작물 관리, 농협·농업인 공동관리위 구성 등
- (비축 적정화) 비축물량 시기 조절, 비축기지 현대화 등 추진
 - ※ 고추·마늘 등에 대한 수입비축 강화 등

○ 산지 규모화,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물류표준화 추진

- (지원대상·지원품목 제한) 물류기기공동이용의 지원대상을 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 등에 한정하고, 포장출하 비중이 낮은 품목(대파, 마늘 등)과 친환경 포장재 등을 집중 지원

- (사업 구조조정) 산지 저온유통시설(저온냉장고 등)에 대한 보조지원은 타 사업(APC 사업) 등에 통합하는 방안 추진

○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등 추진

- (정가·수의매매 확대)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시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을 반영
-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 등)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으로 거래 투명성, 결제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시 다양한 매매 공간 제공

거시경제 동향

201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6월 11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종합

- **201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전년 동월대비 1.9% 상승)

- **농림수산물**: 과실 및 축산물은 상승했으나, 채소류가 크게 내려 전월 대비 **1.6% 하락**

- **공산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는 상승하였으나,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7% 하락

※ 두바이유 평균가격(-8.5%): ('12.4월) 117.34(\$/bbl) → ('12.5월) 107.32(\$/bbl)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2월	3월	4월	5월	'12.2월	3월	4월	5월
총 지 수	1000	0.7	0.6	-0.1	-0.6	3.5	2.8	2.4	1.9
농 립 수 산 품	43.6	4.3	1.4	-3.5	-1.6	-4.4	-3.1	0.2	5.3
곡 물	11.0	0.3	0.1	0.2	0.1	13.1	9.3	6.1	5.5
채 소	7.4	7.6	10.6	-6.0	-11.4	-2.5	3.7	27.3	37.3
과 실	5.3	10.6	2.1	-2.6	4.2	-9.1	-2.6	-4.9	24.0
축 산 물	12.0	-0.3	1.4	-2.9	0.5	-15.0	-16.7	-14.5	-15.8
수 산 식 품	5.3	-0.3	0.2	-0.2	-0.8	-8.6	-8.5	-11.3	-5.4
공 산 품	644.8	0.7	0.7	0.2	-0.7	4.3	3.1	2.5	1.6
석 유 제 품	59.7	2.2	2.6	0.8	-3.4	15.2	10.6	8.1	5.1
화 학 제 품	55.2	2.8	1.6	0.6	-0.8	4.0	2.8	1.7	0.2
1 차 금 속 제 품	65.6	1.3	0.4	-0.4	-1.1	1.2	0.2	-0.1	-1.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93.7	-0.3	-0.3	0.7	0.5	-4.8	-5.0	-2.9	-2.4
전 력 · 수 도 · 가 스	44.5	0.2	0.4	-0.2	-0.7	10.3	10.8	10.1	7.7
서 비 스	264.4	0.0	0.2	0.2	-0.1	1.3	1.3	1.0	0.8
운 수	61.6	-0.3	0.3	0.8	0.4	2.1	2.4	2.2	1.9
통 신	48.6	-0.1	0.1	0.0	-0.2	-0.9	-0.8	-0.8	-1.0
금 용	27.4	0.7	0.0	-1.2	-1.7	-1.9	-2.1	-5.1	-5.6
기 타 서 비 스	31.1	0.2	0.4	0.3	0.2	3.0	3.3	3.2	3.0

□ 부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1.0% 하락(전년 동월대비 4.5% 상승), 신선식품은 4.6% 하락(전년 동월대비 18.4% 상승)
- 에너지는 전월대비 1.7% 하락, IT는 0.1% 상승
-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0.3% 하락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2월	3월	4월	5월	'12.2월	3월	4월	5월
식 료 품	81.3	1.5	1.7	-1.3	-1.0	0.0	0.4	2.1	4.5
식 료 품 이 외	918.7	0.6	0.5	0.1	-0.5	3.8	3.0	2.4	1.6
신 선 식 품	16.4	7.3	6.5	-3.9	-4.6	-10.0	-4.6	3.2	18.4
신선식품이외	983.6	0.6	0.4	0.1	-0.5	3.8	2.9	2.4	1.6
에 너 지	93.8	1.1	1.6	0.8	-1.7	13.3	10.7	9.3	6.9
에너지이외	906.2	0.7	0.4	-0.2	-0.4	2.1	1.7	1.4	1.2
I T	175.1	0.0	0.0	0.0	0.1	-2.3	-2.4	-1.8	-1.5
IT이외	824.9	0.8	0.7	-0.1	-0.7	4.2	3.5	2.9	2.3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6	0.3	-0.1	-0.3	2.5	1.9	1.4	0.9

기획 정보

국내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및 온실가스 감축 대응 동향

□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 대응

- 최근 기후변화가 전 분야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화*되어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적극
 - ※ 세계 공동의 대응으로서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대표적
-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2005): 국가별 온실가스 공동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
-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2011.11) 기후변화 챕터 발표자료,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치인 306기가톤(Gt) 기록하여 2050년 지구평균기온 3~6℃ 증가 우려
 -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달성을 위한 정책 중 탄소에 가격을 부과해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 정책수단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

□ 탄소배출권·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념

- 탄소배출권이란, 국가나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절감된 양에 대해 유엔(UNFCCC)*이 인정하는 배출 권리를 말하며,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명시한 일종의 유가증권을 의미
 - ※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Earth Summit 컨퍼런스에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180개국이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가입

-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란**,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국가나 기업이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팔 수 있고,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
- 일정기간 동안 오염원들에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오염원들 간에 이러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

□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동향

- **EU 회원국과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30개국, 그리고 뉴질랜드 등 31개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2005년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 중

< 주요국들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 >

국 가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현황
유 럽 (31개국)	• '08년부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거래제를 연계 • 1만2,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 자체 배출권 거래제 운영하는 스위스도 연계 준비
호 주	• '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 도입 • '15년부터 가격 변동하는 제도 시행 예정
미 국	•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 중 • 캘리포니아주는 '12년 도입 예정
일 본	• '10년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결정 •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사이타마현, 교토는 '11년부터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중 국	• '13년부터 베이징·충칭·상하이·톈진·선전·허베이·광둥 등 7개 지역에서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 '15년부터 전국 단위로 도입 계획
인 도	• '11년 3월부터 3개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시행 • 생산·수입하는 석탄에 t당 1달러가량의 석탄세 부과

자료: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중앙일보 2012.5.17)

□ 주요국의 농업분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

-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는 **농경지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농업분야 배출권 제도 국내 도입 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 '03년도에 개장한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최근 미국 내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의 영향으로 회원 수 급증
- **일본**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정도를 시설원예에서 배출**하며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 크레딧 거래제도: 참여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배출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한 저감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적인 저감노력을 통해 감축되는 배출량을 그레딧으로 인정하여 이 크레딧을 거래
- **EU-ETS(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농업부문 배출권제도 도입과 관련 참여 배제**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대응 동향

- **지난해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올해('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12.5.2)로 **2015.1.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
- 지식경제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012.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실시**하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연계*해서 시행, 법안의 주요내용(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 수단으로, 산정, 보고, 검증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
 - ※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366여개)로 대상 업체 확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검증 기관의 **검증실적 분석결과, 2011년 대비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 검증가이드라인 개발 등 **배출권 거래제 대응 위한 검증 인프라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과 세계 최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추진, 향후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확대

- ※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 녹색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경영체에게 감축량에 상당하는 ‘인센티브(탄소배출권 등)’ 제공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녹색농업기술을 적용,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여 농축산물의 유통·소비의 활성화 유도
- ※ CDM: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규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 혹은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CDM 사업 등록현황: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37건/12.3.19일 현재)

※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_www.mifaff.go.kr
- 지식경제부_www.mke.go.kr
- 환경부_www.me.go.kr
- 기후변화홍보포털_www.gihoo.or.kr
- 농협경제연구소_www.nheri.re.kr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_www.rri.ekr.or.kr
- 농협경제연구소_CEO Focus 제246호(2010.3.16) “녹색성장과 농협의 시사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과 환경」 No.109 / (2010.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66권 / (2010.11.23)
- 농림수산식품부_보도자료(2012.5.1)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수입도 올린다”
- 농림수산식품부_보도자료(2012.3.22) “소풍·돼지똥으로 돈 번다”
- 농림수산식품부_보도자료(2012.3.20) “세계 최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_보도자료(2012.5.7) “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_보도자료(2012.2.24)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정착단계 돌입, 2012년 99.6% 참여”
- 환경부_보도자료(2011.11.24)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기후변화 챕터 발표”
- 중앙일보 보도자료(2012.5.17)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세계일보 보도자료(2012.5.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첫 단추 잘 끼워야」
- 매일경제 보도자료(2012.5.4)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탄소배출권의 현황과 전망」 (2011.3.11)

[참고자료]

<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

국 가	기후변화방지 대책
E U	• 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 '05~'07년까지 EU 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후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 EU “Energy and climate package” 발표('08) - '20년까지 '90년 기준 배출량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EU집행위는 '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소 20%, 기타 선진국 동참 시 30%까지 감축하겠다는 정책 기조 설정 - '50년까지는 60~80% 감축(전 지구적으로는 50% 감축)
영 국	•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설정('07.11) - UK Climate Change Bill 상원통과('08.3)
미 국	• '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GDP)를 18%까지 낮춘다는 자체 목표 수립 시행 • 동북부(RGGI)와 서부(WCI)의 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중 • '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 목표 설정 • Lieberman-Warner's Act 상원 환경위 통과('07.12) - '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 Cap & Trade 도입 등 • '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년),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일 본	• 본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운영 중 • '50년까지 현재수준에서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설정, '08년 말까지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도입을 공표('08.6)
중 국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20년까지 30% 추가 감축, 신재생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멕시코	•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₂ 톤 감축잠재량 제시

자료: 기후변화홍보포털_www.gihoo.or.kr

< 탄소세 부과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비교 >

구 분	탄소세 부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경제적효율성	• 적용 범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비해 넓어 효율성 높음	• 배출권 거래 참여자에 한하여 효율성 높음
배출량 관리	• 전체 배출량 관리가 난해	• 전체 배출량 관리가 용이
형 평 성	• 탄소세 수입으로 다른 조세 감면하는 방안 병행될 경우 형평성 문제 극복	• 배출권의 초기 할당 시 형평성 문제와 참여자의 비용부담액이 크게 변할 수 있음
정책 수용성	• 산업계의 강한 반발 예상, 다른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필요	• 산업계의 반대 가능성 있음. 탄소배출권 판매의 유인효과는 있음
기술개발촉진	• 조세수입을 기술개발보조금으로 환원할 경우, 간접 유인효과 있음	•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간접 유인효과 있음

자료: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탄소배출권의 현황과 전망」 (2011.3)

□ 전국적으로 가뭄 극심...6월 아순까지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차질 불가피

- 일교차 평년에 비해 심해지는 등 이상기후와 물 부족으로 농작물 성장 차질
- 산간지역 물 부족 심각, 6월 20일경까지 비 오지 않으면 모 타들어 갈 판
- 밭은 수리시설과 관정이 거의 전무해 콩, 깨, 고구마 등 밭농사 폐농 위기
- 저수지 토사 쌓여 담수량 부족, 소하천 정비 시 둑 설치 등 담수기능 고려해야

- 친환경 자연순환형 고추를 2,800평 재배하고 있음.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평년에 비해 심해져 아침 기온이 10℃ 이하였던 경우가 자주 발생.** 고추 터널조숙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노지재배와 별반 차이 없이 성장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음. 또 다른 곳은 국지성 소나기라도 내렸지만 그마저도 내리지 않은 지역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현저하게 더딘 상태**임. 현재 저수지는 거의 고갈상태이며, 다음 주 안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일부 이앙된 모들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됨.<김은규, 전남 강진>
- 경남지역도 가뭄이 극심함. 평야지대는 2, 3단 양수로써 이앙이 가능하지만 **산간지역에는 물이 없어 이앙을 아직 다하지 못하고 있음.** 하순까지 비가 충분치 않으면 대체작물을 심을 계획임. 해결방법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옥을석, 경남 거제>
- 충남지역 농촌은 가뭄으로 인해 고통이 많음. 논은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또 관정도 정부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약간의 가뭄정도는 견딜만함. 하지만 **밭은 경지정리, 수리시설, 관정 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조금만 비가 안와도 타격이 큰 실정**임. 지금이 콩이나 깨, 고구마 등을 심을 시기인데 만일 **6.20일 전후 충분한 비가 안온다면 밭농사는 거의 폐농이나 다름 없음.** <최영호, 충남 부여>

- 경기 파주의 광탄지역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저수지도 있지만 저수지에 많은 토사가 쌓여 있어 담수량이 매우 부족함.** 예전에는 많이 가물어도 장마가 오기 전까지 물대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함. <김천식, 경기 파주>
- 4대강 사업과 병행하여 작년부터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 농업용수 담수에 애로**가 있음. 강, 소하천, 여울물길, 냇가의 중간 중간에 자그마한 둑을 설치하면 고이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많아져 농업용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 이상 기우로 병충에 발생 잦아 조사와 대책 필요

- 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농약을 뿌리면 혹성병 방제가 잘 되었지만 최근은 내성이 생겨 약을 뿌려도 예방이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상황임. **혹성병 예방과 방제 연구가 미흡함. 연구기관은 혹성병 방제 체계를 조속히 정립해 피해를 막아야 함.**<이윤현, 경기 화성>
- 경북 영주지역은 올해 **메뚜기가 유난히 많이 발생해 메뚜기가 모에 달라 붙어 값아 먹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책이 필요함.<김기원, 경북 영주>
- 이앙시기가 5.15일 전후로 일찍 이앙한 논에 **벼줄기 굴다리 피해가 확산** 되었음. 유충이 속잎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잎을 먹고 자라며 피해 잎은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기고 길이 2~30mm의 잎이 세로로 붉은 줄이 생김. 벼물바구미 피해잎과 비슷해 혼돈되기도 함.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해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전재경, 경북 의성>

※ 본 자료는 6월 11일~1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저수율 '바닥' ... 지금이 준설 적기

- 오랜 봄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바닥.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 준설 적기. 6.13일 현재 전국 1만 7,000여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0%대로,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356개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0%대 초반.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10~20%p 낮은 수치.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체계적인 준설이 이뤄져 기대만큼의 저수율을 유지하는 반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준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장마 전에 준설 작업해야 중소형 저수지 가뭄대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 신속 지원할 예정

자료: 농민신문(2012.6.15).

□ 세계 경기침체 농식품 수출 둔화

- '12.5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6억 불로 전년(6.5억 불) 동기대비 1.0% 증가. 부류별로는 수산식품(18.8% ↑), 신선농산물(6.0% ↑), 가공식품(9.3% ↓). 5월 수출실적은 4월에 비해 6.5%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여전히 둔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중국에서의 부진과 지난해 수출증가를 이끌었던 궤련, 인삼, 오징어 등 대형품목의 저조한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파프리카(33.9% ↑)와 멜론(14.1% ↑), 토마토(8.8% ↑) 등 채소류(22.4% ↑) 수출 호조, 인삼(△33.2%) 등은 부진. 국가별로는 ASEAN·대만·러시아 등 증가, 일본·중국·홍콩 등은 감소. 농식품 수출실적 부진으로 농식품부, 6월선적분 부터 수출물류비 지원 및 특별관측 확대로 수출 증가세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6.13).

□ 농업 하나로마트, 수입과일 미련 못 버리나

- 농협 하나로마트, 조삼모사식 수입과일 판매. 강원도 C군의 모 하나로마트, '다문화가정 과일모음전'코너를 설치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판매('다문화가정을 위한 판매행사이며 이익금은 다문화가정에 지원된다')해 농민들은 농협이 협동조합 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 다문화가정 조합원이 점차 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협의 입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협 공판장에서 취급한 과일 물량 중 수입과일의 비중은 6.1%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6.14).

□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늘었지만 신청은 저조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이 1,633억 원('11년) → 4,885억 원('12년)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신청 저조. 이에 따라 농식품부, 신청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총 예산은 보조·융자방식 지원...총 2,760억 원(보조 1,035억 원, 융자 1,725억 원), 보조 없는 이차보전(융자)방식 지원...2,125억 원으로 총 4,885억 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이 재원인 이 사업의 비율은 보조·융자 방식 3%, 보조 없는 융자방식 1%로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 현재 보조가 없는 융자방식의 예산에 대한 신청은 완료, 보조·융자방식의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대규모 농가가 지원액이 많은 융자방식을 선호하는데다 상대적으로 보조·융자 방식보다 비율이 낮은 것도 보조 없는 융자방식의 예산이 먼저 소진된 이유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6.11).

□ 농어촌 공동체 매출 급증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농어촌공동체 회사와 매출규모가 급증. 농식품부, 최근 발표한 '2012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공동체회사는 ('10년) 219 개소 → ('11년) 443 → ('12년) 720, 총 매출액도 ('10년) 3,299억 1,300만 원 → ('11년 말) 5,710억 6,200으로 73.1% 증가, 평균매출액 ('10년) 7억 4,500만 원 → ('11년 말) 7억 9,300으로 6.4% 증가. 이처럼 농어촌공동체 회사 수와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들 회사들이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조직수도 늘어...농어업법인이 최다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6.12).

□ 인삼발, 안숨소리 커진다

- 경쟁업체 없는 **홍삼시장의 독과점**으로 발전 없는 제자리걸음, 생산 현장에선 **연작피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지 축소, 생산량 부족**으로 많은 농가들이 **인삼산업에서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자재비와 농약, 비료,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삼농가들의 경영난은 날로 악화**. 홍삼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는 **국내 인삼농가 육성에는 소홀한 채 주주이익에만 앞서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해외시장을 다지기보다는 **단기 실적내기에 급급**. 반면 중국 최대 인삼 주산지인 길림성에선 성 정부에 의해 인삼산업 육성이 주도적으로 추진, **상해 등 주요 판매처에선 화기삼으로 대변되는 서양삼을 현지 소비자들 선호** 홍삼 수출이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지만 대부분 중국시장에 집중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6.14).

□ 안·일 FTA 협상 재개될 듯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만간 재개. 한·중·일 FTA가 성사되려면 사전에 한·중, 그리고 한·일 FTA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6.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일본·캐나다·호주 등과 FTA 논의 시사**. 한·일 양국은 5.29~30일 서울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FTA 협상 재개 여부를 놓고 논의. '03.12월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은 일본이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04.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 당시 일본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개방계획서)에는 56%만 개방

자료: 농민신문(2012.6.15).

□ [기획] 세계를 공략하는 공동브랜드 마케팅

- **우리나라 농산물브랜드** ('99년) 3,215개 → ('06년) 6,552개 → ('11년 7월말 기준) 5,291개, **10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
 - 이렇게 농산물 브랜드가 많은 이유는 **2000년대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 개발열풍으로 브랜드가 난립**한데 기인
- 산지유통단계에서부터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해 전국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산지교섭력을 높이고 난립한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전국단위 공동브랜드마케팅이 대세**

■ 과수농협연합회 - '썬플러스'

- 썬플러스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요 사업목적
- 대한민국 대표 과일 브랜드로 국내 마케팅에 이어 수출시장에서까지 한국산 과일의 공동브랜드로 영역을 확대
- 외국의 공동브랜드인 썬키스트에 대응, 세계로 국내 우수과실을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썬플러스의 국내에서의 활발한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지속

■ 한국배연합회 - 'K-PEAR'

- 한국 배의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상자를 단일화해 '한국배(K-pear)' 표준 수출 박스를 제작해 보급 한다는 방침
- 배 수출 규격상자 개발, 브랜드화를 통해 한국배의 이미지 제고

■ 농협중앙회 - '케이멜론'

- '09.11월 공식 출범해 '10.6월 첫 출시, 전국의 1,287명의 농업인과 23개 농협, 13개 농협시군연합사업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산물 공동 멜론 브랜드
- 공선출하회를 통한 농업인 정예화와 재배매뉴얼에 의한 생산 및 품질관리, 이력추적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지자체, 농협, 농업인의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국 통합마케팅을 통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실행

■ 마늘전국연합회 - '본마늘'

- '11.12월 출범한 마늘전국연합회는 양념류 최초로 전국공동브랜드인 '본(本)마늘' 브랜드 출시
- 재배 매뉴얼에 따라 생산된 고품질 마늘을 농협에서 엄격한 선별과 가공 과정을 거쳐 상품화한 후 전국 통합마케팅을 통해 판매
-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ERP시스템(상품화이력조회시스템) 구축, 단계적으로 GAP인증 확대, 통합 수발주 및 다양한 매체 홍보전략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6.11)

□ ‘팜 파티(Farm Party)’ 를 아시나요?

- 최근 농촌에서 **팜 파티*가 농촌관광의 새로운 홍보 기법**으로 부각.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체험관광에 팜 파티를 접목한 사례 증가**
 - 사례 1. 4.28일 전남 화순, 500여명이 참석한 복사꽃 팜 파티 개최로 800만 원의 농산물 판매
 - 사례 2. 5.26일 경북 경산, 200여명이 참석한 대추밭 팜 파티 개최
- **농촌관광 서비스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홍보에 도움**
 - ※ 미국의 농촌체험활동 중 하나로, 농장에서 생일파티 등 이벤트를 열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활동에서 유래, **팜 파티(농촌체험관광+사교활동)**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파티의 공동 주최자가 되어 해당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체험관광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

자료: 농민신문(2012.6.13)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5월 FAO 식량가격지수

※ 본 자료는 6월 8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2년 5월 FAO 식량가격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2012년 FAO 5월의 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9point 하락**한 204 point 기록
 - 이는 '10년 9월(194 point) 이래 최저치이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11년 2월(238 point) 보다 14% 낮은 수치
 - ※ 식량가격지수 ('11.2월) 238 → (12월) 211 → ('12.1월) 213 → (4월) 213 → (5월) 204
- 세계 경제 불확실성,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전망이 호전**되면서 **곡물, 유제품, 설탕 등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하락**

□ 주요 품목별

- (곡물)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약 1% 낮은 221point**
 - 밀 가격은 기상 상황 호전 및 옥수수 가격 급락에 따른 영향 하락
 - 옥수수 가격은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USDA 보고서 발표 이후 하락
 - 국제 쌀 가격은 라마단 영향으로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
- (유지류)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약 7% 낮은 234point**
 - 대두유 및 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11.12월 이래 지속되던 상승세 반전
- (육류)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point 내려간 179point**
 - 가금육 가격은 상승한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소고기 및 양고기 가격은 안정세 유지
- (유제품)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2% 내려간 164point**
- (설탕) **설탕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약 9% 하락한 295point 기록**

- 설탕 가격은 인도, EU, 태국,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로 3개월 연속 하락세 유지

□ 2012/13년도 세계 곡물공급량 전망

- 2012년도 세계 곡물생산량: 2,419백만 톤 전망(2011년 대비 3.2% 증가)
- 2012/13년도 세계 곡물소비량: 2,376백만 톤 전망(2011/12년도 대비 21% 증가)
 - ※ 주요 곡물 생산량 전망치:
 - 쌀 10.4백만 톤(2.2% 증가)
 - 잡곡 84.6백만 톤(7.3% 증가)
 - 밀 20.2백만 톤(2.9% 감소)
- 2013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 548백만 톤 전망(기초재고량 대비 7% 증가)
 - ※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 전망치:
 - 쌀 34.6%
 - 잡곡 16.2%
 - 밀 26.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